

2026학년도 9월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국어 영역

※ 본 전국연합학력평가는 16개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시행되며, 문제지는 EBSi에서만 제공됩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정답

1	①	2	②	3	③	4	④	5	⑤
6	②	7	②	8	③	9	①	10	⑤
11	③	12	④	13	③	14	④	15	②
16	①	17	⑤	18	④	19	③	20	④
21	②	22	⑤	23	⑤	24	⑤	25	④
26	③	27	②	28	④	29	①	30	③
31	③	32	⑤	33	③	34	⑤	35	③
36	②	37	④	38	①	39	①	40	⑤
41	③	42	②	43	①	44	②	45	④

해설

** 화법 · 언어 **

1. [출제 의도]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 파악하기

발표자는 1문단의 ‘여러분, 지난~내용을 기억하시나요?’, 2문단의 ‘여러분, 혹시~뜻인지 아시나요?’, 3문단의 ‘여러분은 이~것으로 이해되시나요?’와 같이 청중에게 질문하는 방식을 통해 청중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② 3문단에서 ‘(화면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라는 비언어적 표현을 활용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발표 순서를 안내하고 있지는 않다. ③ 3문단에서 띄어쓰기 생략 사례를 시각 자료로 제시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발표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2. [출제 의도] 발표 계획의 반영 여부 확인하기

2문단에서 줄임말인 ‘스카’, ‘자만추’, ‘겐소’의 의미를 하나씩 풀어서 제시하고 있으나, 줄임말에 담긴 의미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① 1문단에서 발표자는 온라인 의사소통 방식이 현대의 보편적 의사소통 방식이 되었고, 사용자가 빠르고 즉각적인 소통을 추구하는 경향이 커졌음을 밝힘으로써 현대의 의사소통 양상을 언급하고, ‘오늘은 줄임말의 ~대해 발표하겠습니다.’라고 말함으로써 발표 주제를 소개하고 있다. ③ 2문단에서 ‘줄임말은 연령, ~양상이 달라집니다’라고 말함으로써 사용자 및 언어 공동체의 특성이 줄임말 사용 양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④ 3문단에서 ‘한두가지’, ‘배우신분’이라는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띄어쓰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의도나 전하려는 내용이 상대방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⑤ 4문단에서 청중에게 언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언어 습관을 돌아보기를 바란다는 당부하고 싶은 바를 언급하며 발표를 마무리하고 있다.

3. [출제 의도] 띄어쓰기의 적절성 파악하기

㉠의 ‘밖에’는 체언 ‘나’ 뒤에 결합하여 ‘그것 말고는’, ‘그것 이외에는’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이

므로 앞말과 붙여 써야 한다.

① ㉠의 ‘같이’는 ‘함께’라는 뜻을 나타내는 부사로, 독립성을 가진 단어이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② ㉡의 ‘이라면’은 체언 ‘나일’ 뒤에 결합하여 그 체언이 서술어가 되게 하는 격조사이므로 앞말과 붙여 써야 한다. ④ ㉢의 ‘갈래’는 동사 ‘가다’의 활용형이고, ㉣의 ‘같이’는 형용사 ‘같다’의 활용형으로 두 단어 모두 독립성을 가지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⑤ ㉤의 ‘것’은 ‘도착할’의 꾸밈을 받는 의존 명사이고, ㉥의 ‘데’는 ‘앉을’의 꾸밈을 받는 의존 명사이므로 두 단어 모두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 화법 **

4. [출제 의도] 협상 참여자의 의사소통 방식 파악하기

[B]에서 ‘학생 1’은 작년에 축제 홍보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문제 상황을 언급하고 있지만 ‘학생 2’에게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지는 않다.

① [A]에서 ‘학생 1’은 ‘학생 2’에게 올해 축제에 편성된 예산이 작년보다 줄었다는 정보를 근거로 내세우며 지원금을 양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② [A]에서 ‘학생 1’은 동아리 부스 운영 지원이나 무대 설치에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고 발언하였으나, ‘학생 2’는 지난 겨울 방학에 조명과 방송 장비를 교체했기 때문에 작년만큼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변화된 상황을 언급하면서 ‘학생 1’의 발언 내용과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③ [B]에서 ‘학생 1’은 ‘학생 2’가 추가 지원금을 받아 부스 운영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학생 2’가 얻게 된 것을 언급하며 축제 2주 전쯤 축제 홍보를 도와달라는 요구를 전달하고 있다. ⑤ [B]에서 ‘학생 2’는 축제 홍보를 도와달라는 ‘학생 1’의 제안을 수용한 뒤 축제일에 다목적실을 전시 공간으로 매정해 달라며 자신이 바라는 바를 제안하고 있다.

5. [출제 의도] 자료 활용 방안 적용하기

[자료 1]에서 학생들이 학생회에 바라는 점에 점심시간 프로그램 운영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자료 2]에서 주변 학교 점심시간 프로그램 중 사제동행 산책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자료 3]에서 ‘함께 걷기’가 신체 건강과 세대 간 소통에 도움이 됨을 확인할 수 있다.

6. [출제 의도] 협상 내용 고려하기

‘학생 2’의 첫 번째 발화에서 체육활동부가 정기적으로 해 왔던 등굣길 건강 증진 캠페인이나 학급 단합을 위한 체육 대회 이벤트 등을 작년에는 예산 부족으로 실시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체육활동부가 추가 지원금으로 작년에 반응이 좋았던 활동을 유지할 수 있다고 떠올린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언어 **

7. [출제 의도] 주체 높임 이해하기

<보기>의 ‘아버지께서 산에 다녀오셨다.’는 ‘아버지’라는 주체를 직접 높이기 위해 주격 조사 ‘께서’와 선어말 어미 ‘-으시-’를 사용했다. [자료]의 ㉠은 주체를 간접적으로 높이기 위해 선어말 어미(‘아름다우시다’의 ‘-으시-’)를 사용했다. [자료]의 ㉢는 ‘할머니’라는 주체를 직접 높이기 위해 주격 조사 ‘께서’, 선어말 어미(‘읽으신다’의 ‘-으-

시-’)를 사용했고, 주체를 간접적으로 높이기 위해 선어말 어미(‘읽으셔서’의 ‘-으시-’)를 사용했다. [자료]의 ㉤은 주체를 직접 높이기 위해 주격 조사 ‘께서’, 특수 어휘(‘주무신다’)를 사용했고, 주체를 간접적으로 높이기 위해 선어말 어미(‘아프셔서’의 ‘-으시-’)를 사용했다. 따라서 ㉢는 주체를 직접 높이기 위해 주격 조사와 선어말 어미를 사용했다가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다.

8. [출제 의도] 중세 국어의 특징 파악하기

㉠에서는 ‘아들’의 양성 모음 ‘·’와 ‘을’의 양성 모음 ‘·’가 어울리는 모음 조화를, ㉡에서는 ‘뜻’의 음성 모음 ‘-’와 ‘을’의 음성 모음 ‘-’가 어울리는 모음 조화를 확인할 수 있다.

① ‘하늘’에서 ㅎ 중성 체언을 확인할 수 있다. ② ‘뜻’에서 어두 자음인 ‘ㅌ’을 확인할 수 있다. ㉣에서는 자음 ㅎ 뒤에서 주격 조사 ‘이’를, ㉤에서는 ‘이’ 계열 모음이 아닌 모음 뒤에서 주격 조사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에서는 ‘아들’의 ‘ㄷ’을 다음 자의 조성에, ㉡에서는 ‘뜻’의 ‘ㄷ’을 다음 자의 조성에 내려 쓰는 이어 작기를 확인할 수 있다.

9. [출제 의도] 시제 이해하기

ㄱ에서 형용사 어간 ‘맑-’에 결합한 관형사형 어미 ‘-은’과, 동사 어간 ‘가리키-’에 결합한 선어말 어미 ‘-ㄴ-’을 통해 현재 시제가 실현된다.

㉡에서 동사 어간 ‘가-’에 결합한 관형사형 어미 ‘-는’과 동사 어간 ‘잡-’에 결합한 선어말 어미 ‘-는-’을 통해 현재 시제가 실현된다. ㉢에서 시간 부사 ‘아까’와 동사 어간 ‘주-’에 결합한 관형사형 어미 ‘-ㄴ-’을 통해 과거 시제가 실현된다. ㉣에서 동사 어간 ‘심-’에 결합한 관형사형 어미 ‘-은’을 통해 과거 시제가 실현된다. ㉤에서 시간 부사 ‘지금’과 동사 어간 ‘보-’에 결합한 선어말 어미 ‘-ㄴ-’을 통해 현재 시제가 실현된다.

10. [출제 의도] 음운 변동의 유형과 음운 개수 변화 파악하기

㉠의 ‘단풍잎[단풍닙]’은 ‘풍’의 ‘ㅇ’과 ‘잎’의 모음 ‘ㅣ’ 사이에 [ㄴ]이 추가되는 첨가, ‘잎’의 ‘ㅍ’이 [ㅂ]으로 바뀌는 교체가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늘었고, ㉢의 ‘간지럽히던[간지러피던]’은 ‘럽’의 ‘ㅂ’과 ‘히’의 ‘ㅎ’이 합쳐져 [ㅍ]이 되는 축약이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줄었다.

① ㉠의 ‘가득히[가드키]’는 ‘득’의 ‘ㄱ’과 ‘히’의 ‘ㅎ’이 합쳐져 [ㄱ]이 되는 축약이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줄었다. ② ㉡의 ‘늦어름[늦너름]’은 ‘늦’의 ‘ㄷ’이 [ㄴ]으로 바뀌는 교체가 일어나고, [느]의 [ㄷ]과 ‘어’의 반모음 ‘ㅣ’ 사이에 [ㄴ]이 추가되는 첨가, [느]의 [ㄷ]이 [ㄴ]으로 바뀌는 교체가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늘었다. ③ ㉢의 ‘불계[불게]’는 ‘계’의 ‘ㄱ’이 [ㄱ]으로 바뀌는 교체가 일어나 ‘불’의 ‘ㄱ’이 없어지는 탈락이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줄었다. ④ ㉣의 ‘깊숙한[깊쑤한]’은 ‘깊’의 ‘ㅍ’이 [ㅂ]으로, ‘숙’의 ‘ㅅ’이 [ㅅ]으로 바뀌는 교체와 ‘숙’의 ‘ㄱ’과 ‘한’의 ‘ㅎ’이 합쳐져 [ㄱ]이 되는 축약이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줄었고, ㉤의 ‘따뜻한[따뜨탄]’은 ‘뜻’의 ‘ㅅ’이 [ㄷ]으로 바뀌는 교체가 일어난 후 [뜨]의 [ㄷ]과 ‘한’의 ‘ㅎ’이 합쳐져 [티]이 되는 축약이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줄었다.

** 사회 **

□ 출전 : (가) 권오승 외, 『독점규제법』
(나)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11. [출제 의도] 글의 전개 방식 파악하기

(가)는 독점규제법이 자유방임으로 인해 나타난 독점 자본의 폐해를 시정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자 마련되었다는 것을 통해 독점규제법이 마련된 취지를 설명하고 있고, (나)는 지식 재산권을 행사하는 자의 행위로 인한 경쟁 제한 효과가 효율성 증대 효과를 상회하는 경우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을 통해 지식 재산권 행사의 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설명하고 있다.

④ (나)는 지식 재산 제도와 독점규제법이 혁신을 장려하고자 하는 공통점을 지님을 제시하고 있지만, (가)는 각국의 독점규제법이 보이는 차이점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⑤ (나)는 지식 재산권의 남용을 공정거래법을 통해 규제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지만, (가)는 독점규제법의 적용 범위가 확장된 양상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12. [출제 의도] 글의 세부 내용 파악하기

(가)의 2문단에 따르면, 독점규제법은 국가 공권력의 개입을 통해 자유 경쟁의 정신을 회생시키고 기업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따라서 독점규제법이 기업 간 자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 경제에 대한 공권력의 개입을 줄이고자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① (가)의 2문단에 따르면, 초기 자본주의에서는 공권력이 국가 경제에 개입하지 않는 자유방임으로 인해 독점 자본이 급격히 성장하며 과도한 이윤을 추구하였다. 이를 통해 초기 자본주의에서는 독점 자본이 과도한 이윤을 추구하는 것에 대한 규제가 부재했음을 알 수 있다. ② (가)의 4문단에 따르면, 시장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 소비자 후생의 극대화라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시장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일어나지 않고 독점 자본이 가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게 되면 소비자 후생의 극대화가 이루어지기 어려움을 알 수 있다. ③ (가)의 1문단에 따르면, 세계 여러 나라가 독점규제법을 마련하는 것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이며, 이것이 전체 국민의 행복의 크기를 키우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⑤ (가)의 3문단에 따르면, 공정거래법은 기업결합을 하려는 경우 사전 신고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등, 기업결합의 제한을 통해 독과점 기업의 등장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을 알 수 있다.

13. [출제 의도] 글의 세부 내용 파악하기

(나)의 2문단에 따르면, 특허권자는 특허 발명의 이용 범위를 한정하여 부분적으로 실시를 허락할 수 있다. 따라서 특허권의 실시를 허락할 때 특허 발명을 부분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정당한 권리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라고 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① (나)의 1문단에 따르면, 지식 재산 제도는 혁신적인 기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제공한다. 또한 (나)의 2문단에 따르면, 특허권자가 이론 기술적 성과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② (나)의 2문단에 따르면, 부당하게 거래 상대방에 따라 실시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특허권의 정당한 권리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며, 이때 '부당하게'는 경쟁 제한 효과가 효율성 증대 효과를 상회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나)의 3문단에 따르면, 독점규제법은 자본이 지나치게 소수에게 집중될 경우 기술 혁신이 저해될 것이라는 가정을 근간으로 성립되었다. ⑤ (나)의 1문단 및 3문단에 따르면, 지식 재산 제도는 혁신적인 기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통해 새로운 기술 혁신에 대한 유인을 마련하고자 하

며, 이를 통해 기술 혁신을 촉진한다.

14. [출제 의도] 글의 세부 내용 추론하기

(가)의 2문단에 따르면, 독점규제법은 기업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나, 사회적 약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과는 달리 약소 기업을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법은 아니다. 이를 통해, 독점규제법은 기업 간 균형 있는 발전이 특정 주체에게 직접적 혜택을 부여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① (가)의 2문단에 따르면, 독점규제법은 기업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므로 시장 경제에서 약소 기업이 발생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되어야 하는 결과라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가)의 2문단에 따르면, 초기 자본주의에서 나타났던 위기는 독점 자본이 가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며 과도한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폐해가 중소기업과 소비자에게 전가된 것이다. 따라서 공권력이 약자 보호를 위해 시장 경제에 개입하는 것이 초기 자본주의에서 독점 자본으로 인해 나타났던 위기를 더 심화할 수 있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독점규제법은 약소 기업을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법이 아니므로, 특정 주체에게 직접적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조치라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5. [출제 의도] 어휘의 문맥상 의미 파악하기

(가)의 3문단에 따르면, 기업은 기업 결함을 통해 비용 절감과 같은 효율성 증대 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이 기업 결함을 시도할 때 경쟁 사업자를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⑥의 문맥상 의미를 기업결함을 시도할 때 '목표한 대로'라는 의미로 파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① '회생'은 '거의 죽어 가다가 다시 살아남'의 의미이므로, ②의 문맥상 의미를 초기 자본주의의 상황에서 파괴되어 가던 자유 경쟁의 정신을 '다시 살아나게 하고'라는 의미로 파악하는 것은 적절하다. ③ '행사하다'는 '권리의 내용을 실현하다'의 의미이므로, ④의 문맥상 의미를 자신이 지닌 특허권의 독점적·배타적 사용권을 '실현할'이라는 의미로 파악하는 것은 적절하다. ④ '부과하다'는 '일정한 책임이나 일을 부담하여 맡게 하다'의 의미이므로, ⑤의 문맥상 의미를 특허권자가 자신이 요구하는 것인 조건을 거래 상대방에게 '부담하여 맡게 할'이라는 의미로 파악하는 것은 적절하다. ⑤ '상충하다'는 '맞지 아니하고 서로 어긋나다'의 의미이므로, ⑥의 문맥상 의미를 독점규제법과 지식 재산 제도의 내용이 '서로 어긋나'는 의미로 파악하는 것은 적절하다.

16. [출제 의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나)의 2문단에 따르면, 조건이 해당 특허 발명의 실시를 위해 필수적인지 고려하는 것을 통해 부당성을 판단하는 것은 실시 허락 시 조건을 부과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다. 그러나 <보기>에서 A가 실시료 할인을 제공한 것은 실시 허락 시 조건을 부과한 것이 아니라, 자사의 모범점 이용 여부를 고려하여 부당하게 거래 상대방에 따라 실시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A가 실시료 할인을 제공한 것이 부당하지 판단하려면 할인이 특허 발명의 실시에 필수적인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가)의 3문단에 따르면, 둘 이상의 기업이 하나의 기업으로 합병하는 등의 기업결합이 이루어지면 기업은 비용 절감과 같은 효율성 증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③ (가)의 3문단에 따르면, 기

업결합으로 인해 시장 점유율의 합계가 해당 거래 분야에서 제1위가 된다면 이는 해당 거래 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보기>에서 A의 기업과 B의 기업이 합병한다면 시장 점유율의 합계가 과반이 되어 해당 거래 분야에서 제1위가 될 것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것이 모범점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것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④ <보기>에 따르면, A가 디지털 이동 통신 기술의 실시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한 것으로 인해 휴대폰 제조업체들은 A 이외의 사업자로부터 모범점을 구입하려는 시도를 포기하였다. 따라서 A가 디지털 이동 통신 기술의 실시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한 것은 모범점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를 발생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나)의 2문단에 따르면, 특허권자가 이론 기술적 성과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실시료 부과 행위는 특허권에 의한 정당한 권리 행사이다. 따라서 B가 모범점 시장에 진입하기 전 A가 디지털 이동 통신 기술의 실시료를 수익을 창출한 것은 공정거래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인문 **

□ 출전 : 이행남, 「칸트의 도덕적 자율성으로부터 해uel의 인문적 자율성으로」

17. [출제 의도] 글의 세부 내용 파악하기

3문단에 따르면, 헤겔은 국가 단계에서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질서가 조화를 이루기' 위한 조건을 국가의 법과 제도라고 보았다. 헤겔은 국가의 법과 제도가 '완성된 형태의 자유가 실현되기 위한 조건'이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외적 강제'가 아니라고 보았다. 따라서 헤겔이 개인과 공동체가 조화를 이루기 위한 조건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보았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① 1문단에 따르면, 예지계는 '이성에 의해 ~ 인식되지 않는' 세계이다. 2문단에 따르면, '자유'는 '예지계에 속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자유'는 경험적으로 인식될 수 없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② 1문단에 따르면, 현상계에서 인간의 의지는 '갈라져 욕구 등 이성인 것이 원인이 되어 규정되며' '인간은 이러한 의지에 따라 행위한다'고 하였다. 또한 칸트는 '현상계에서의 행위를 타율적인 것으로 보았'으므로, 칸트가 이성 이외의 것이 원인이 되어 이루어지는 행위를 모두 타율적인 것으로 보았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③ 4문단에 따르면, 헤겔은 자유가 '종중 개인의 선택 가능성으로만 잘못 이해된다'고 보고, 이를 '추상적 자유'라고 비판하였다. 헤겔은 추상적 자유가 '공동체의 질서와 타인의 자유를 해치는 파괴적 성향을 띠 수 있다'고 보았다. ④ 3문단에 따르면, 헤겔은 시민 사회 단계에서 '개인이 권리와 이익을 추구하면서 각종 제도가 수립되어 자유의 실현이 보다 구체화'된다고 하였다. 또한 헤겔은 '가족, 시민 사회, 국가'라는 관계망 속에서 자유가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형태로 실현된다'고 하였으므로, 헤겔이 제도의 수립으로 인해 시민 사회 단계에서 가족 단계보다 지속 가능한 형태로 자유가 실현된다고 보았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18. [출제 의도] 글의 핵심 내용 파악하기

2문단에 따르면, 칸트는 '예지계에서 이성을 통해 보편적인 행위 법칙인 도덕 법칙을' 인간이 스스로에게 부과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이에 따라 '이성이 원인이 되어 의지를 규정하고 행위를 실천할 때' 인간은 자유를 의식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자유와 관련하여 다른 무엇보다 개인의 이성을 중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문단에 따르면,

해결은 ‘개인의 의지가 사회적 관계와 제도 속에서 구현될 때 자유가 실현된다’라고 하여 자유와 관련하여 사회적 관계 및 제도를 중시하였다. 따라서 해결의 입장에서 칸트에 대해, 자유를 개인의 이성에만 의존해 규정하여 자유가 사회적 관계와 제도 속에서 실현되는 것임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다.

① 3문단에 따르면, 해결은 자유가 ‘가족, 시민 사회, 국가라는 관계망’의 확장에 따라 점차적으로 ‘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형태로 실현된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자유가 관계망의 확장에 따라 위계적으로 실현된다는 것은 해결의 입장으로, 이를 칸트가 오인하고 있다고 해결이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2문단에 따르면, 칸트는 인간이 ‘도덕 법칙을 스스로에게 부과할 수 있는 자기입법 능력을 지닌다’고 하였고 1문단에 따르면, ‘폐를 추구하고 불쾌를 피하고자 하는 감각적 욕구’가 원인이 되어 의지를 규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칸트가 도덕 법칙을 중시했다고는 볼 수 있으나, 감각적 욕구가 의지를 규정할 수 있음을 부정했다고는 볼 수 없다. ③ 3문단에 따르면, 해결은 ‘가족 단계에서는 사랑이라는 정서에 기초하여 관계 속에서 자유가 실현되지만, 이를 위한 제도적 보장이 약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사랑의 기능이 자유의 실현을 제도적으로 완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진술은 해결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다. ⑤ 1, 2문단에 따르면, 칸트가 인간을 현상계와 예지계 모두에 속하는 존재로 보는 것은 맞으나, 앞선 원인에 의해 사건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현상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서 자유를 의식할 수 없다. 따라서 이는 칸트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다.

19. [출제 의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3문단에 따르면, 해결은 시민 사회 단계에서 개인이 이익을 추구하며 ‘이해관계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고, 국가 단계에서 법과 제도로 인해 ‘이해관계의 조정이 가능’해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A가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려고 한 것을 이해관계의 조정으로 인해 가능해진 것이라고 보았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① 2문단에 따르면, 칸트는 ‘보편성’을 ‘어떤 준칙을 모든 이성적 존재자에게 적용했을 때 모순 없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A는 모든 사람들이 기술을 유출한다면 유출할 기술 자체가 사라질 것이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는 준칙이 모순 없이 실현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며 보편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② 2문단에 따르면, 칸트는 ‘도덕 법칙에 ~수 있다’고 보았다. A가 경제적 이익이 아니라 도덕 법칙에 따라 이성이 원인이 되어 기술 유출을 거부하는 행위를 실천하였으므로, A의 행위를 통해 A가 자유를 의식할 수 있다고 칸트가 볼 것이라는 진술은 적절하다. ④ 4문단에 따르면, 해결은 추상적 자유를 ‘법이나 제도를 ~부정하는 것’이며, ‘공동체의 질서와 ~수 있다’고 보았다. A의 충동은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온라인에 폭로를 하려는 것으로, 해결이 이를 파괴적 성향을 띠 수 있다고 보았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⑤ 3문단에 따르면, 해결은 ‘개인의 의지가 사회적 관계와 제도 속에서 구현될 때 자유가 실현된다’고 하였으며, 국가 단계에서 ‘국가의 법과 제도’를 통해 ‘완성된 형태의 자유’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A는 공의 신고자 보호법이라는 국가의 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구현하였으므로 이를 통해 완성된 형태의 자유가 실현될 수 있다고 해결이 볼 것이라는 진술은 적절하다.

** 과학 **

□ 출전: 마크 베이 외, 『신경과학』

20. [출제 의도] 글의 세부 내용 파악하기

3문단에 따르면, D1수용체에 도파민이 결합하면 2차 전달자인 cAMP가 신경 세포 내부에서 신경전달물질의 신호를 증폭한다. 따라서 신경 세포 내부에서 신호가 증폭되면 2차 전달자가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의 생산을 감소시킨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① 4문단에 따르면, ‘도파민 수용체는 신호의 전달 강도를 약화시킨다’고 하였으므로, 도파민 신호의 전달 강도는 수용체에 의해 조절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4문단에 따르면, ‘민감도와 내성은 중독이 생기는 과정에서 각각 발생하기도 하고 동시에 일어나기도 한다.’라고 하였으므로 민감도가 일어나면 내성이 생기지 않아도 중독이 생길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3문단에 따르면, ‘보상 회로를 구성하는 신경 세포 표면에 있는 도파민 수용체는 도파민에만 선택적으로 결합’하고 ‘D1수용체와 D2수용체로 나뉜다’고 하였으므로 보상 회로의 신경 세포 표면에 있는 D1수용체와 D2수용체는 도파민에만 결합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⑤ 1문단에 따르면, ‘도파민은 원하는 것을 의미하는 보상을 얻기 위한 행동을 유발하는 등 행동 조절 역할을 하는 신경전달물질’이라고 하였고, ‘복측 피개 영역에서 분비된 도파민은 즉각적으로 전달’되고 ‘이후 도파민은 전전두엽피질로 전달되어 적절한 행동 반응을 하게 한다.’라고 하였으므로 인간이 보상을 얻기 위한 적절한 행동 반응을 하게 하려면 복측 피개 영역에서 분비된 도파민이 전전두엽피질로 전달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21. [출제 의도] 글의 핵심 내용 파악하기

1문단에 따르면, ‘즉각적인 보상을 받으면 보상을 추구하는 행동을 하려는 동기를 부여하고 활성화가 억제되면 동기 부여가 사라’진다. 이익을 얻두에 두지 않고 투자를 시도했던 사람이 이익을 보았다면 이는 기대하지 않은 보상을 얻은 것으로, ㉠에 따르면 즉각적인 보상을 추구하는 행동을 하려 할 것이다. 하지만 이 사람은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으므로 ㉠에 해당하는 사례로 적절하지 않다.

①, ④ 기대하지 않은 보상을 얻어 즉각적인 활성화되어 보상을 추구하는 행동을 하려는 동기가 부여된 사례이다. ③ 보상이 기대보다 못하여 즉각적인 활성화가 억제되어 동기 부여가 사라진 사례이다. ⑤ 기대 이상의 보상을 얻어 즉각적인 활성화되어 보상을 추구하는 행동을 하려는 동기가 부여된 사례이다.

22. [출제 의도] 글의 세부 내용 파악하기

4문단에 따르면, 민감도(㉠)가 일어나면 ‘특정 자극에 집착하게 되고 다른 자극에 대한 반응은 줄어들게 된다’고 하였고 내성(㉡)은 ‘같은 수준의 보상을 위해서 더 크고 강한 자극이 필요해지는 것’이라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① 4문단에 따르면, 내성(㉡)은 특정 약물이나 행동에 대해 도파민 수용체가 지속적으로 자극을 받으면 도파민 수용체가 신호의 전달 강도를 약화시키거나 수용체의 개수를 줄여 수용체의 민감도가 낮아질 때 발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내성(㉡)은 도파민 신호의 전달 강도가 약해질 때 생길 수 있다. ② 같은 수준의 자극에 더 강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민감도(㉠)이다. ③ 4문단에 따르면, 내성(㉡)은 도파민 수용체가 신호의 전달 강도를 약화시키거나 수용체의 개수를 줄여 수용체의 민감도가 낮아질 때 발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내성(㉡)은 도파민 수용체의 개수가 변하면서 보상 회로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다. ④ 4문단에 따르면, 민감도(㉠)은 ‘행동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과

행동에서’ 겪을 수 있고, 내성(㉡)은 ‘특정 약물이나 행동에 대해 도파민 수용체가 지속적으로 자극을 받으면’ 생길 수 있으므로 민감도(㉠)와 내성(㉡) 모두 특정한 행동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23. [출제 의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2문단에 따르면, 보상 회로의 즉각적인 보상을 얻을 때보다 보상을 기다리는 동안 더 활성화되며, ‘기대한 것과 동일한 보상은 아무리 긍정적이더라도 즉각적인 활성화 정도를 변화시키지 않는다’. 또한 3문단에 따르면 ‘도파민이 결합한 D1수용체는 cAMP의 생산을 증가시키고 D2수용체는 cAMP의 생산을 감소시키며, 이에 따라 신경 세포가 활성화되거나 활성화가 억제’된다. <보기>에서 B가 다음 시간이 되어 그 사망을 받은 것은 기대한 것과 동일한 보상인 경우로, 똑같은 사망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을 때보다 D1수용체에 의해 즉각적인 활성화되는 않았을 것이다.

① 2문단에 따르면, 즉각적인 보상이 기대보다 못하면 활성화가 억제’된다고 하였다. A는 SNS에 올린 디지털 사진에 대해 ‘좋아요’를 기대했지만 알람이 뜨지 않아 실망하여 사진을 올리지는 않는다. 이는 보상이 기대보다 못하여 즉각적인 신경 세포 활성화가 억제된 것이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② 2문단에 따르면, 즉각적인 보상을 얻을 때’ 활성화된다. 3문단에 따르면, ‘도파민이 결합한 D1수용체는 cAMP의 생산을 증가’시킨다. A가 매일 꽃 사진을 올린 것은 기대했던 ‘좋아요’ 알람이 자주 뜨 즉각적인 활성화되었기 때문이며, 이에 cAMP 생산을 증가시키는 수용체가 신경 세포의 활성화를 조절한 것이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③ 1문단에 따르면, ‘즉각적인 활성화되면 보상을 추구하는 행동을 하려는 동기’가 부여된다. 3문단에 따르면, cAMP는 신경 세포 내부에서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의 신호를 증폭하는데, 도파민이 결합한 D1수용체는 cAMP의 생산을 증가시킨다. B가 사망을 먹는 상상을 하며 발표 준비를 한 것은 ‘원하는 것’을 의미하는 보상을 추구하는 행동을 하려는 동기가 부여된 것이므로 B가 발표 준비를 한 것에는 cAMP에 의해 신경 세포 내부에서 도파민 신호가 증폭된 것이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④ 2문단에 따르면, 보상 회로의 즉각적인 보상을 기대할 만한 단서를 접했을 때 활성화된다. B가 선생님이 가지고 온 바구니를 본 것은 보상을 기대할 만한 단서를 접한 것이므로 B가 선생님이 가지고 온 바구니를 봤을 때, 즉각적인 활성화되어 보상을 추구하려 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독서·작문 **

□ 출전: (가) 은재호, 『공론화의 이론과 실제』 (나) 노화준, 『정책학원론』

24. [출제 의도] 글의 세부 내용 파악하기

(나)의 2문단에서 ‘정책 불응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여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내용과 정책 불응의 원인 및 원인별 대응 확보 방안은 확인할 수 있으나, 정책 불응의 원인을 분석하는 방법에 어떤 것이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① (가)의 1문단에서 ‘공론화는 어떤 ~것을 의미’한다고 제시한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② (가)의 1문단에서 ‘공론은 다수가 ~여론과는 다르다.’라는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③ (나)의 1문단에서 ‘정책은 대상 ~있기 때문이다.’라는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④ (나)의 2문단에서 ‘목표에 동의하지 ~수 있다.’라는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나)의 3문단에서 ‘이 경우 ~전달해야 한다.’라는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5. [출제 의도] 읽기 방법 파악하기

(나)의 3문단에 따르면, '정책의 내용이 대상 집단에게 명료하게 전달되지 못한 경우'에 정책 불응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책 내용을 '효과적인 전달 방식을 사용하여 대상 집단이 이해하기 쉽도록 분명하게 전달'하여 순응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대상 집단에게 정책의 내용을 명료하게 전달하는 것은 순응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일 뿐, 정책 목표를 제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아니다.

① (가)의 3문단에 따르면, 공론화의 과정에서는 '정보의 진위와 중요성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다)의 2문단에서, '주민들이 공청회에 직접 참여하여 정책과 관련한 정보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공동으로 정보의 사실 여부를 판별'한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다)를 작성하기 위해 (가)에서 공론화의 과정과 관련해 언급한 내용을 확인하며 읽었음을 알 수 있다. ② (가)의 1문단에 따르면, 공론화의 목표는 '공공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의견'인 '공론을 형성하는 것'이다. (다)의 2문단에서, '주민들이 공청회에 직접 참여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다)를 작성하기 위해 (가)에서 공론화의 기능과 관련해 언급한 내용을 확인하며 읽었음을 알 수 있다. ③ (가)의 2문단에 따르면, '주민들이 공청회에 직접 참여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다)를 작성하기 위해 (가)에서 공론화의 기능과 관련해 언급한 내용을 확인하며 읽었음을 알 수 있다. ④ (가)의 2문단에 따르면, '주민들이 공청회에 직접 참여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다)를 작성하기 위해 (가)에서 공론화의 기능과 관련해 언급한 내용을 확인하며 읽었음을 알 수 있다. ⑤ (나)의 2문단에 따르면, '정책 불응의 해결 방안은 '수단과 효과 사이의 인과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다. (다)의 3문단에서,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과 그 효과 사이의 인과 관계를 설명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의혹을 해결'하고 '정책 불응을 줄일 수 있'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다)를 작성하기 위해 (나)에서 정책 불응의 해결 방안과 관련해 언급한 내용을 확인하며 읽었음을 알 수 있다.

26. [출제 의도] 작품 계획의 반영 여부 확인하기

(다)의 2문단에서 정책 전문가의 견해를 근거로 하여 '공청회에서 이루어지는 정보 공유 및 논의 과정이 정책의 오류를 수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발전을 위한 양질의 정책 마련이 가능해진다'라는 내용이 제시되었을 뿐, 주민 공청회가 정책 결정에 대한 주민 참여를 높일 수 있다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② (다)의 1문단에서 '주민 공청회 도입이 지역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④ (다)의 4문단에서 '주민 공청회'가 '정책 결정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며 주민 공청회 도입을 반대할 수 있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⑤ (다)의 4문단에서 '주민 공청회를 ~가능성이 높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7. [출제 의도] 자료 활용 방안의 적절성 파악하기

<보기>의 '갈등은 조직 내에 잠재해 있는 문제를 겉으로 드러내 명확히 함으로써 문제 해결의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한 것을 (가)의 3문단에서 '정제된 합의 의견을 형성할 수 있는' '공론화의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충돌해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한 것과 연결 지어, 정제된 합의 의견 형성 과정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잠재된 문제의 해결 기회가 공청회의 갈등을 통해 마련된다는 내용으로 [A]에서 '공청회에서 갈등은 오히려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한 반박을 구체화할 수 있다.

① '갈등이 집단의 역동성을 높인다'는 내용은 갈등의 순기능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를 활용하여 '주민 공청회가 불필요한 갈등을 촉발'한다는 예상 반론을 구체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나)의 2문단에 따르면, 전문가의 설득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과 그 효과 사이의 인과 관계를 설명하는 방법일 뿐 정책 목표의 타당성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므로, '전문가가 정책 목표의 타당성을 설득할 수 있음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다)의 반박은 '주민 공청회에서 갈등은 오히려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내용 이므로 주민 공청회 과정에서의 갈등이 아닌 '정책 불응으로 인한 갈등'과 관련한 내용으로 반박을 구체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변화에 대한 동의를 구성원 간 갈등을 통해 얻어 낸다'는 것은 갈등의 순기능을 의미하므로, 이를 활용하여 '주민 공청회가 불필요한 갈등을 촉발'한다는 예상 반론을 구체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작문 **

28. [출제 의도] 작품 계획의 반영 여부 확인하기

3문단에서 복식 파트너와 신호를 주고받으며 연습을 하는 내용은 제시했지만, 복식 파트너에게 신호를 주고받는 연습을 제안했을 때 떠올린 생각을 덧붙이지는 않았다.

① 1문단에서 '그래서 부족한 ~ 참여하기로 했다.'를 통해 제시하였다. ② 2문단에서 '체력이 좋아져 ~ 수 있었다.'를 통해 구체화하였다. ③ 2문단에서 '나는 단식 ~ 했기 때문이다.'를 통해 덧붙였다. ⑤ 3문단에서 '노력을 통해 ~ 만족감을 느꼈다'를 통해 구체화했다.

29. [출제 의도] 글쓰기 전략 파악하기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찬 것처럼'이라는 비유적 표현을 활용해 자신이 베드민턴 연습을 하는 모습을 서술했다.

② '복식 경기의 ~ 특징을 지니는데'를 통해 단식과 복식 종목의 차이점은 서술했지만 공통점을 나열하여 베드민턴의 특징을 서술하지는 않았다. ③ 체육 선생님의 말을 인용했지만 베드민턴 파트너와의 갈등은 서술하지 않았다. ④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속담은 활용했지만 베드민턴 연습 과정에 대한 반성은 서술하지 않았다. ⑤ 베드민턴 대회에서 좋은 결과를 얻는 상황을 가정하지 않았다.

30. [출제 의도] 조건을 반영하여 고쳐 쓰기

'무리한 운동은 ~ 조심해야 한다.'라고 한 것은 베드민턴 연습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소감을 쓴 글의 흐름에서 벗어난 내용이다(㉠). '이번 프로그램을 ~ 얻게 되었다.'는 프로그램으로 인한 긍정적 변화이다(㉡).

** 고전 소설 **

□ 출전: 작자 미상, 「정수경전」

31. [출제 의도] 작품의 세부 내용 이해하기

'노복 중에 ~ 죽었다고 의혹하였습니다'를 통해, 이 소저가 사건의 경위를 김 소저와 노복의 관계를 바탕으로 추측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① '제 분수에 맞지 않게 과거에 참여하고자 하여 모친께서 말리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지 않고 경성에 왔습니다'를 통해, 수경이 어머니의 뜻에 따라 과거 시험을 보려고 경성에 온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② 백항죽이 '대감이 특별히 야기'는 종임을 들은 관원이 '나를 명하여 바로 사랑에 들어가 백항죽을 잡아'낸 것을 통해, 관원은 백항죽이 신임받는 종임을 알았음에도 그를 잡아 오기를 망설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④ '부질없는 말 하지 말고 곧 고향에 돌아가 모친의 얼굴이나

다시 뵈도록 하여라'를 통해, 점쟁이가 죽을 액을 막으려면 어머니를 만나야 한다고 수경에게 권유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⑤ 수경이 점쟁이의 말을 듣고 '안색이 흙빛으로 변하여' '죽을 액을 막을 수 있도록 방책을 가르쳐' 달라고 하고서 '계속해서 울었다'를 통해, 수경이 죽을 운수를 이미 한 번 모면했기에 앞으로의 액운들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32. [출제 의도] 대화의 특징 파악하기

[A]의 수경은 '제가 죽으면 만 리 밖에서 매일 같이 기다리시는 모친은 어떻게 합니까?'라며, 자신이 죽었을 때라는 미래의 상황을 가정하며 '방책을 가르쳐 주'기를 점쟁이에게 간청하고 있다. [B]의 점쟁이는 수경이 겪을 미래의 일이 '흉악하고 참혹'하다고 예견하며 '그때 이것을 내어놓으면 너를 구해 줄 누군가가 나타날 것'이라면서 자신이 준 그림을 내어놓으라는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① [B]에 '평생 동안 한 일이나 업적'을 의미하는 행적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③ [B]의 점쟁이는 대응 방안을 제시하기는 하지만 해결이 어려울 수 있음을 말할 뿐 수경에 대한 걱정을 드러내며 수경을 위로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④ [A]에서는 '만일 제가 ~ 어떻게 합니까?'에서 물음의 방식을 사용했으나, 이를 통해 자신의 요구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지 않으며, [B]에서는 '이것은 진정 그야말로 귀 막고 방울 흔드는 격'이라는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를 통해 수경이 처한 상황의 어려움을 말한 것이지, 점쟁이의 의지를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은 아니다.

33. [출제 의도]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하기

이 소저가 '이곳에 오래 머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한 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며 하는 말이므로, 조력자가 누명을 쓰게 된 피해자인 남성 주인공을 돕기 위해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고 볼 수 없다.

① 수경이 '저의 목숨을 ~ 구하시는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에서 운명에 순응하지 않으려는 수경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이 소저가 백항죽의 호패를 찾아 확인하라고 하자 '관원이 그 말대로 호패를 때어' 본 것에서 문제 해결자로서 공적 영역에 참여하는 여성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④ 관원들이 이 소저의 전갈을 듣고 '전후 사정에 대한 설명과 경계가 밝고 뚜렷'하다고 여기는 것에서 여성 조력자의 지적 능력과 판단력을 확인할 수 있다. ⑤ 백항죽이 '죄를 세세히 털어놓'은 것에서 가해자로 의심받던 수경이 누명을 벗고 죽을 운수라는 운명을 극복해 갈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 갈래 복합 **

□ 출전: (가) 정훈, 「단군가」
(나) 박지원, 「이존당기」

34. [출제 의도] 작품 간의 공통점 파악하기

(가)는 '안표가 자주 빈들 나같이 비었으며 / 원현의 가난인들 나같이 극심할까'에서, (나)는 '눈이 몸에 ~ 앉을 것이네.'와 '입의 경우에도 ~ 앉을 것이네.'에서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여 주체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① (가)는 '봄날이 따뜻하여 뼈뚜기'가 보채거늘'을 통해 자연물과의 교감을 확인할 수 있지만, (나)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 ② (가)는 화자가 가난 귀신과 대화하는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였지만 탈속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지는 않다.

35. [출제 의도] 작품 이해의 적절성 파악하기

[C]에서는 종에게 먹을 것을 풍족하게 주지 못하는 화자의 상황에 대한 종의 부정적인 반응이

제시될 뿐, 종들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려는 과정이 제시되고 있지는 않다.

① ‘안표가 자주 빈들 나같이 비었으며 / 원현의 가난인들 나같이 극심할까’에서 ‘안표’나 ‘원현’이라는 다른 대상과의 비교를 바탕으로 ‘나’의 가난이 심각함을 부각하고 있다. ② ‘올벼 씨 한 말은 반 넘게 쥐 먹었고 / 기장 피 조 팔은 서너 되 부쳤거늘’과 ‘흙고 주린 식구 이리하여 어이 살리’에서 농사 준비 중 나타난 문제를 제시하여 식구의 생계가 나아지기 어려운 형편을 드러내고 있다. ④ ‘베를 북’, ‘술 시루’와 ‘무엇으로 제사하며’, ‘손님들은 어이하여 접대할꼬’에서 일상생활과 관련된 소재를 활용하여 책임을 다하기 힘든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⑤ 화자가 ‘사망으로 가라’ 하니 가난 귀신이 ‘어려서 지금까지 ~ 하여 이르느뇨’라고 대화하는 형식을 통해 ‘나’를 떠나지 않으려는 가난 귀신의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36. [출제 의도] 작품의 세부 내용 이해하기

장중거는 ‘비난을 피하고 위협을 멀리할 방법을 생각한 끝에’ 친구들과의 만남을 거절하기로 결심했을 뿐, ‘나’의 조언을 바탕으로 결심한 것은 아니다.

① 진사 장중거는 ‘호기가 있어 취하면 실언이 많았다’는 것을 통해, 장중거가 호기로온 성품을 지녀 술에 취하면 말실수가 잦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일반 사람들의 처지에서는 발을 들일 땅조차 거의 없’으며, ‘요행히 살고 요행히 죽음을 면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통해, ‘나’는 일반 사람들이 죽음을 면하고 살아남는 일이 운에 달려 있다고 인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④ ‘독실하고 경건했던 중자’도 ‘온전히 살다 돌아감을 다행으로 여겼’는데 ‘일반 사람들이야 말해 무엇하겠’냐고 하는 것을 통해, ‘나’는 일반 사람들보다 훌륭한 인물마저도 몸을 보존하는 것을 어렵게 여겼다고 보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위험을 멀리할 방법을 생각한 끝에’ ‘이준’이라는 글자를 ‘주역’에서 취해 와 ‘방문에 걸어 놓’은 것을 통해, 장중거가 몸을 보존하겠다는 뜻을 품은 후 경전에서 취해 온 글자를 문에 걸어 이를 드러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7. [출제 의도] 구절의 의미 이해하기

㉠에는 아무리 겨울이 더워도 몸을 가릴 것이 없다는, 자신의 가난한 상황에 대한 화자의 근심이 드러난다. ㉡에는 몸을 보존하기 어려운 자신의 처지에 대한 인물의 막막함이 드러난다.

38. [출제 의도]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하기

‘어려서 지금까지 ~ 하여 이르느뇨’라며 ‘온가지로 험박’한 것은 가난 귀신이 화자를 떠나지 않겠다고 한 것이다. 따라서 ‘온가지로 험박’한 것을 화자가 궁핍한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것으로 볼 수 없다.

② ‘돌이켜 생각’하여 ‘빈천’을 ‘내 분수’로 여기는 것은 가난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통해 화자가 자기 위안을 도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장중거가 자신을 보존하기 위해 밀실에 숨어 살면서 ‘스스로 죄수처럼 지’내는 것은 은거를 시도하려는 인물의 행위이다. 이에 대해 ‘나’가 ‘마침내 남들의 의혹을 자아내’게 될 뿐이라고 한 것은 은거에 대한 글쓴이의 경계라고 볼 수 있다. ④ ‘예가 아닌 것’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올바른 도리가 아닌 것에 동요하지 않는 것으로, 이는 글쓴이가 제시하는 진정한 자기 보존이라고 볼 수 있다.

※ 현대 소설 ※

□ 출전 : 김소진, 「장석조네 사람들」

39. [출제 의도] 서술상의 특징 파악하기

상호와 고영만 씨, 빵을 나누어 먹는 주민들,

고영만 씨와 시장이 대화를 주고받는 장면을 제시하여 서사를 현장감 있게 전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고영만 씨가 상호에게 장석조와 있었던 일을 회상해서 전달한다고 볼 수 있으나 이를 중심으로 사건의 전개를 지연시키며 서술하고 있지는 않다. ④ 서술자는 이야기 내부가 아닌, 이야기 외부에서 서술하고 있다.

40. [출제 의도] 구절의 의미 이해하기

㉠은 ‘예가 아닌 것 같으니.....’라며 말을 생략하고 있으나, 이는 ‘내려오’라는 시장의 제안을 수락하여 행동을 실천하겠다는 고영만 씨의 의사를 보여 준다. 따라서 내려간다는 행동을 실천하는 것에 대해 망설이고 있음을 보여 준다고 볼 수 없다.

① ‘내가 무슨 용가리 뚝배인가?’라는 물음의 방식을 활용하여 상호에게 가난한 상황에서 장석조의 제안을 받아들인 자신의 선택이 어쩔 수 없었던 것임을 제시하고 있다. ② ‘뺨속에 사무치다’라는 관용적 표현을 활용하여 상호가 ‘모든 체해’ 주면 그 고마움을 빼에 새길 정도로 깊이 간직하겠다는 자신의 뜻에 따라 주기를 바라는 간절함을 드러내고 있다. ③ ‘중말이당가?’, ‘중말이당가?’라고 질문을 반복하여 시장이 자신을 찾아왔다는 상황이 믿기지 않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④ 시장을 ‘명관’이라고 칭송하며 자신이 원하는 바인 ‘애로 사할을 들어주’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기대를 나타내고 있다.

41. [출제 의도] 소재의 의미 파악하기

㉠은 공동체 구성원인 상호와 고 씨 간의 갈등을 유발한다. ㉡는 더운 날씨에도 ‘고생개나’ 하며 만들어 타인에게 배운 것이라는 점에서 공동체 구성원인 주민들을 위한 애런 엄마의 마음을 보여 준다.

② ㉢는 같은 집단에 속한 주민들이 나누어 먹은 것이므로 집단 간의 수평적인 질서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다. ④ ㉣는 장석조가 ‘빠져 달라’는 요구를 관철하려는 의도로 고 씨에게 준 것이지만, ㉤는 애런 엄마가 주민들에게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려는 의도로 나누어 준 것이 아니다.

42. [출제 의도] 외적 준거를 활용하여 작품 감상하기

‘그만 고것에 눈이 어두워 내가 담뱃 끊어안고 한달음에 집까지 달려왔다’는 것은 장석조에게 매수당한 고영만 씨의 모습이므로 이를 통해 부당한 현실에 맞서 저항하는 소외 계층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① 소외 계층을 구호하기 위해 시행된 취로 사업의 대가인 ‘밀가루’를 배급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밀가루를 ‘애대개 기다리’고 있는 것에서 도시 빈두리에서 살아가는 소외 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책임자들이 ‘풀방구리 드나들 듯’하며 창고를 거덜 낸 비리가 발생하여 ‘전표대로 밀가루 두 포 반씩을 내주고’, ‘썩은 밀가루 받은 사람’에게 ‘보상’해 주라는 ‘요구 사항’을 야기된 것에서 소외 계층의 삶이 ‘취로 사업’에서 일어난 비리 때문에 더 힘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오 경찰의 ‘지시’에 따라 청소부 백 씨가 ‘양복’을 입고 시장 노릇을 수행하여 고영만 씨를 속인 뒤 다시 ‘청소복’으로 갈아입는 것을 통해 소외 계층에 대한 권력 계층의 기만적인 행태를 확인할 수 있다. ⑤ ‘농성’을 하며 저항을 시도했던 고영만 씨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었다고 생각하여 ‘미소를 지으려 했’으나 권력 계층의 억압을 상징하는 ‘군화발’과 ‘곤봉’에 맞아 ‘곤죽’이 되고, 사내가 ‘양복’을 벗고 ‘청소복’을 걸치는 모습을 붙잡아 두려고 한 행위마저 ‘허사’가 된 것에서 소외 계층의 저항 시도가 권력 계층에 의해 좌절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현대시 ※

□ 출전 : (가) 김신정 외, 『현대시론』

(나) 백석, 「팔원(八院) - 서행시초(西行詩抄)」

(다) 기형도, 「기억할 만한 지나침」

43. [출제 의도] 표현상의 특징 파악하기

(나)는 ‘차디찬 아침’에서 시간적 배경을 촉각적 이미지로 구체화하여 ‘계집아이’라는 인물이 처한 암울한 현실을 부각하고 있다.

② (나)는 ‘승합자동차는 텅 하니 비어서’에서 시적 공간을 음성 상징어를 통해 묘사하고 있으나, 긴박한 시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⑤ (나)는 ‘새하얗게 얼은 자동차 유리창’에서, (다)는 ‘건물들은 눈을 뒤집어쓰고 / 희고 거대한 서류 봉지로 변해갔다’에서 계절적 배경을 색채 이미지를 통해 구체화하고 있으나, 계절적 배경을 감각적으로 묘사하고 있을 뿐 시간의 순환성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44. [출제 의도] 시어의 의미와 기능 파악하기

(다)에서 화자는 ‘유리창’을 통해 ‘한 사내’를 바라보고, ‘고통스러운 감정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은 화자의 감정 변화를 촉발하는 다른 인물을 화자가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매개체라고 볼 수 있다.

① (나)에서 화자는 ‘유리창’을 통해 공간 외부의 인물인 ‘내지인 주재소장 같은 어른과 어린아이’를 관찰하고 있을 뿐, 공간 외부의 인물이 ㉢를 통해 관찰의 주체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③ (다)에서 화자는 ‘혼자 울고 있는’ ‘한 사내’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창밖에서 떠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다른 인물인 ‘한 사내’에 대한 연민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는 다른 인물에 대한 화자의 심리적 거리감을 조성하는 장치라고 볼 수 없다. ⑤ (나)에서 화자는 ‘유리창’을 통해 다른 인물과 소통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는 화자와 다른 인물 간 소통을 유도하는 장치라고 볼 수 없다.

45. [출제 의도] 외적 준거를 활용하여 작품 감상하기

(나)의 화자는 ‘계집아이’의 ‘발고랑처럼 몸시도 터진’ ‘손관등’을 관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계집아가 ‘내지인 주재소장 집’에서 ‘찬물에 걸레를’ 치는 등 식모살이를 했을 것이라는 과거를 추측하고 있다. (다)의 2연에서 ‘그 사내’와 동일한 상황에 처한 화자는 ‘그를 떠올리’지만, 이는 인물의 외양을 바탕으로 과거를 추측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① (나)에서 화자는 ‘진진초록 새 저고리’를 입었으나 ‘손관등’이 ‘발고랑처럼 몸시도 터진’ 계집아이의 모습을 통해 ‘계집아이’의 고단한 삶의 모습을 부각하고 있다. ② (나)에서 화자는 ‘느끼며’ 우는 ‘계집아이’를 보고 ‘눈을 씻’는 ‘어느 한 사람’의 행위에 주목하여 계집아이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고 있다. ③ (다)에서 화자는 ‘눈이 퍼뜩’ ‘밤’의 ‘텅 빈 사무실’이라는 상황에서 ‘그 사내’를 ‘떠올리’고, ‘어리석은 자라고 생각하지 않’게 된다. 이는 비슷한 처지의 인물과 자신을 동일시하여 인물에 대한 공감을 드러내는 것이라 볼 수 있다. ⑤ (나)의 ‘계집아이’는 내지인 주재소장 집에서 식모살이를 하는 등 일제 강점기 현실로 인해 고통받는 인물이다. 따라서 (나)는 ‘계집아이’를 통해 일제 강점기 현실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의 ‘거대한 서류 봉지’로 변해가는 ‘건물’은 도시의 억압적 현실을 의미하며, 그 속에서 ‘혼자 울고 있는’ ‘한 사내’는 이러한 억압적인 현실로 인해 고통받는 인물이다. 따라서 (다)는 ‘한 사내’를 통해 도시의 억압적 현실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

고 있다고 볼 수 있다. |